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28 색채와 국기

이라크의 국기, 정권교체·전쟁 이유 5회 교체

●이라크

이라크의 국기는 1921년에 제정되었으며, 정권교체와 전쟁 등의 이유로 다섯 차례 바뀌었는데, 현재의 국기는 지난 2008년에 새롭게 개정된 것이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빨강과 하양 그리고 검정, 초록 문구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색은 관용을 상징한다.

●이집트

이집트의 국기는 위로부터 빨간색과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 3가지 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으며, 가운데에는 '살라딘의 독수리'라고 부르는 국장이 새겨져 있다.

이 국기 속에 있는 국장(노란 매)은 이슬람의 유명한 장군 살라딘(Saladin, 1138년~1193년)의 매를 상징한다. 하얀색은 평화와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이탈리아

1871년 이탈리아에서는 교황과 왕의 권력 갈등이 새로운 분쟁으로 불붙었다. '하얀 당'은 왕을 지지했고, '검은 당'은 성직자들의 권력을 지지했다. 이때만은 예외적으로 교황이 검은 당이 되었다.

●인도

인도의 국기는 1947년에 제정되었으며, 인도 국민회의의 깃발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주황과 하양 그리고 초록, 24개의 축을 가진 파란 법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색은 진리와 평화 그리고 화합을 상징한다.

인도에서는 하얀색 소를 빛의 화신으로 여기며, 인도의 일부 지방에서는 햇빛을 보기 위해 하얀색 동물을 바쳤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코팅제 생산업체인 듀폰(DuPont)은 '2008 듀폰 글로벌 자동차 색상 인기도 리포트'를 발표했다. 인도에서는 하얀색(28%)이 1위로 나타났다.

타지마할(Taj Mahal)이라는 색은 타지마할 묘당의 외관을 이미지시킨 노란 기미가 있는 하양이다. 17세기 가로(Garo) 족의 샤 쟈한(Shah Jahan, 1592년~1666년) 황제의 아름다운 왕비 무무타즈(Mumutaz) 마할의 왕묘는 22년간 걸쳐 완성되었으며, 하얀색 대리석의 인도·이슬람 양식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이다. 황제의 애정과 왕비의 죽음에 대한 애도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일본

일본의 국기는 일본어로 히노마루(둥근 해)라고 하고,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해를 좋아했으며, 16세기부터 선박에 게양했다. 이것은 하얀 바탕에 빨간색 원이 있으며, 이 원은 태양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하얀색은 청결, 금욕, 순진무구, 정통을 상징한다. 일본에서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새하얗다'라는 표현을 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코팅제 생산업체인 듀폰은 '2008 듀폰(DuPont) 글로벌 자동차 색상 인기도 리포트'를 발표했다. 일본 소비자들은 하얀색(32%)을 1위로 꼽았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킬러문항으로 본 공교육의 현실

취재수첩

김혜인
취재2부 기자
hyein.kim@jnilbo.com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다. 지난 6월19일 대통령실은 킬러문항을 배제한 수능 출제기조를 강조했고, 수험생들은 수능을 치렀다.

결과적으로 수학 영역의 한 주관식 문항이 극도로 낮은 정답률을 기록하면서 킬러문항으로 꼽혔다. 이외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서 국어 영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에 달하는 등 이른바 '불수능'이었다.

없앴다고 했지만 등장해버린 킬러문항,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준 국어·수학 영역 등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누가봐도 킬러문항이지만 정부는 '매력적 오답', '변별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며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통 5%내외 정답률을 기록한 문항을 킬러문항이라 일컫는데 출제기관은 논란의 킬러문항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킬러문항을 없애고자 한 이유는 공교육 과정 내에서 학습되지 않은 개념, 연산, 지문 등을 어렵게 출제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즉 킬러문항이 공교육 킬러라고 단정지으면서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단순히 학교냐 학원이냐의 차이가 아니다.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교육은 원칙과 개념보다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그렇다보니 수능이라는 대시험 앞에서 문제풀이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교육의 특혜를 입은 학생들 실력이 더 앞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능이 사교육 증가의 범인으로 지목되자 점차 정시의 비중이 줄어가고 수시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수시로 지원했을 때는 수능 성적에서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좌지우지 되는 양상은 전보다 줄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마주하는 시험은 수능이 전부가 아니다.

중간·기말고사부터 모의고사까지 시험 앞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교육계의 자성이 필요하다.

시험이 전부가 아닌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매년 등장하는 수능 폐지안도, 수시 확대 기조도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부는 공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킬러문항이냐 아니냐는 지엽적인 논쟁보다 시험만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광범위한 마약류 확산, 경각심 필요하다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2천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단속 1만5천182명에 비해 47.5% 늘어났다.

마약 범죄는 언제든 궐기하고, 전파 확산이 쉽게 이뤄지는 중독성 있는 범죄이며 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에 보다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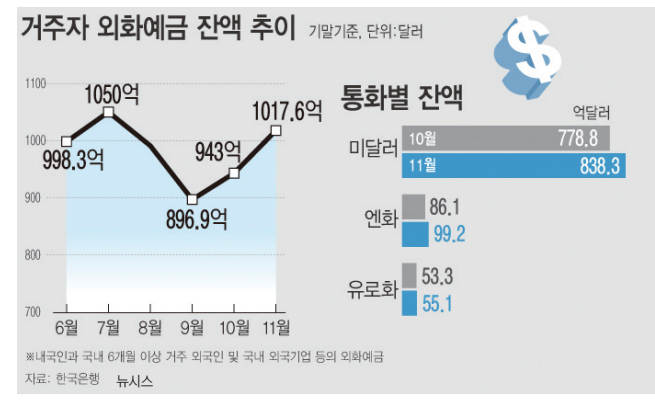
마약 중독자를 실제 치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뿐으로, 치료 받은 마약 중독자의 80%가 이곳을 이용한다고 한다.

마약 중독자 치료 병원은 전국에 24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 중 9곳은 지난 5년간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며, 마약 중독자는 증가하는데 마약 치료 병상과 전문 의사는 오히려 감소된 실정이다. 의사는 2018년 170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치료 병상도 2018년 414개에서 2021년 292개로 떨어졌다 올해 360개가 됐다.

마약 근절 전쟁 승리와 청정국 복귀를 위해선, 단속·검거와 함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재활이라는 두 축이 맞물려갈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약, 단 한 번이면 당신은 끝" "한번은 괜찮겠지, 마약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 포스터 문구들이 없어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청정국 복귀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철욱 〈진도경찰서〉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